

朝鮮王朝
實錄抄

滿蒙史料

朝鮮王朝
實錄抄 滿蒙史料

東京大學文學部編

版權所有



全15冊 \$ 300⁰⁰

畝 225,000 원

一九八二年 六月 八日 印刷
一九八二年 六月 一日 發行

發行處

出版

景仁文化社

代表 韓相夏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三街九五一三

廣德빌딩 二〇二號

電話 二六五 六三三〇番

一九七三年 二月 八日 登錄

登錄番號 第七一一六號

對替口座 서울五五九三二番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方面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굴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關係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凡 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의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輯한 것이다.

一、明代의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리지 아니하였다.

一、明代의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 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사항을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末리에 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一、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一、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들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體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가, 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너더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나, 正俗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潛, 潛, 潛을 潛으로 통일한 파 위다. 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贅歎 따위. 그러나, 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호를 붙였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겸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보여서 이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普通用 포함) 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疑(一、)을 붙였다.

一、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전하려고 힘썼다.

가.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 즉, 先行의 는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 干支^先行——干支^後續 ○(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 干支와 後續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틀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카」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 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掲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太祖實錄……………一

高麗朝……………三

太祖元年(洪武二十五年)……………六

太祖二年(洪武二十六年)……………三

太祖三年(洪武二十七年)……………四

太祖四年(洪武二十八年)……………五

太祖五年(洪武二十九年)……………七

太祖六年(洪武三十年)……………六

太祖七年(洪武三十一年)……………八

定宗實錄

定宗元年(建文元年).....

八七

定宗二年(建文二年).....

九三

太宗實錄

太宗元年(建文三年).....

九七

太宗二年(建文四年).....

一〇六

太宗三年(永樂元年).....

一二九

太宗四年(永樂二年).....

一四四

太宗五年(永樂三年).....

一五七

太宗六年(永樂四年).....

一八一

太宗七年(永樂五年).....	100
太宗八年(永樂六年).....	111
太宗九年(永樂七年).....	115
太宗十年(永樂八年).....	119
太宗十一年(永樂九年).....	120
太宗十二年(永樂十年).....	125
太宗十三年(永樂十一年).....	121
太宗十四年(永樂十二年).....	125
太宗十五年(永樂十三年).....	123
太宗十六年(永樂十四年).....	120
太宗十七年(永樂十五年).....	121
太宗十八年(永樂十六年).....	121

太祖康獻大王實錄

太祖實錄 卷一

〔參〕○〔上略〕

〔穆祖〕性豪放有志四方初在全州時年二十餘勇略過人山城別

監入館因官妓事與州官有隙州官與按廉議上開發兵圖之穆祖聞之

遂徙居江陵道三陟縣民願從而徙者百七十餘家營造船十五隻以備

倭既元也窟大王兵侵諸郡穆祖保頭陀山城以避亂適前日山城別監

新除按廉使又將至穆祖恐禍及挈家浮海至東北面宜州即德原止焉民

一百七十餘戶亦從之東北之民多歸心焉於是高麗以穆祖爲宜州兵

馬使鎮高原以禦元兵時雙城即永興以北屬于開元路元散吉大王來

屯雙城謀取鐵嶺以北再遣人請穆祖降元穆祖不得已率金甫奴等一

千餘戶降前此平壤民聞穆祖威望多有附者至是與從之散吉大喜禮

待甚厚置盛宴歡飲將罷散吉親以玉杯納諸穆祖懷中曰公之家人安

知吾二人相與之至情聊以玉杯表吾情耳因相與誓曰自後無相忘也
穆祖乃以族女妻散吉穆祖由水陸路至時利即利城其千戶以兵阻之穆
祖語以歸順之意千戶宴慰甚厚穆祖亦以牛馬報之遂至開元路南京
之幹東居焉寔宋理宗寶祐二年元憲宗四年高麗高宗四十一年甲寅
也

〔參〕○明年乙卯散吉聞于元帝元爲立幹東千戶所給降金牌爲南京等處
五千戶所首千戶兼達魯花赤幹東在南京東南九十餘里距今慶興府
東三十里幹東西北百二十餘里有豆門城又其西百二十餘里有幹東
沙吾里沙吾里女眞言站也站在幹東管內故云然其平有大土城南京
之平亦有大土城其北七八里又有大石城皆穆祖管領軍民之所居也
穆祖雖居幹東而往來諸城不常厥居

〔參〕○幹東東南三十餘里有海島曰者考羅北連於陸穆祖築石城以放牛
馬

〔參〕○憲宗八年受散吉令旨管領李春文大純趙奧魯哥兒卓青尙哉光奕張哥等八介百戶之任上充兼挖扎百戶句當

〔參〕○世祖皇帝中統二年辛酉六月尙書省給降本所行使銅印

〔參〕○至元元年甲子五月欽受宣命仍充幹東千戶句當至元十一年甲戌十二月薨葬于孔州即慶興府城南五里後遷葬于咸興府之義興部韃靼洞

卽德陵

〔參〕○十八年辛巳世祖征日本天下兵船會于合浦翼祖蒙上司文字將本所人戶簽撥軍人與雙城摠管府三撒千戶蒙古大塔失等赴征下略

〔參〕○初穆祖時時往峴城諸女眞千戶達魯花赤皆願納交遂與之從遊諸千戶禮待甚厚必宰牛馬享宴輒留數日諸千戶有至幹東者穆祖亦如是逮翼祖承襲遵而不改翼祖威德漸盛諸千戶手下之人多歸心焉諸千戶忌而謀害之曰李翼祖諱本非我類今觀其勢終必不利於我盍請兵於深處之人而除之且分其財產乎乃謬告曰吾等將獵北地而來請停

會二十日翼祖許之過期不來翼祖親往峴城唯老弱婦女在丁壯無一人問之一女對曰貪其獸多至今不返耳翼祖乃還道見一老嫗頭戴水桶手持一椀翼祖忽渴欲飲老嫗淨洗其椀取水以進因言曰公不知乎此處之人忌公將圖之請兵而去非獵也後三日必來貴官威德可惜不敢不告翼祖惶遽而返使家人船載家產順流豆滿江而下期會赤島自與孫夫人渡加陽灘登高望之則幹東之野賊彌滿而來先鋒三百餘人幾及之翼祖與夫人走馬至赤島北岸水廣可六百步深不可測所期之船亦未至無如之何北海本無潮汐水忽退落約百步許其淺可涉翼祖遂與夫人累騎一白馬而涉及從者畢涉水復大至賊至不得渡北方人至今稱之曰天之所助非人力也翼祖於是陶穴而居其基至今存焉幹東之民聞翼祖所在從之者如歸市皆居島內久之取稷島楸島草島之材作船十艘至元二十七年庚寅復以水路還居宜州孔州之民皆從之其所居之地至今稱爲赤田以其自赤島而來也

〔參〕○成宗大德四年十月宣授承仕郎管領雙城等處高麗軍民達魯花赤
〔參〕○初翼祖以咸州土地平衍沃饒幹東之民南來者多處之州之歸州草
古臺王巨山雲天松豆等都連浦阿赤郎耳等地故稱咸州爲幹東逸彥
女眞謂民爲逸彥及是度祖盡有安邊以北之地而移居咸州爲近於南來之民且
便於牧養也

〔參〕○順帝元統二年甲戌度祖患風疾欲傳職於塔思不花趙氏請以其子
完者不花承守後至元丁丑中書省差官來刷庚寅年從來幹東之人度
祖呈省陳乞竟不刷還

〔參〕○初雙城地沃饒吏治闊略東南民無恒產者多歸焉恭愍王聞于元中
書省遼陽省皆差官來王亦遣征東省郎中李壽山往會分揀新舊籍民
謂之三省照勘戶計其後撫綏失宜稍流徙王命桓祖鎮之民由是得安
其業越明年丙申桓祖入見王迎謂曰卿撫綏頑民不亦勞乎

恭愍王五年丙申

〔參〕○時奇皇后之族倚后勢暴橫后兄大司徒輒潛通雙城官吏趙小生卓都卿等結爲黨援謀逆王語桓祖曰卿且歸鎮吾民脫有變當如吾命是年五月平奇氏命密直副使柳仁雨往討雙城仁雨等次登州距雙城二百餘里逗遛不進王聞之授桓祖試少府尹賜紫金魚袋進階中顯遣兵馬判官丁臣桂傳旨內應桓祖聞命卽刻銜枚就行與仁雨合兵攻破雙城小生都卿等棄妻子夜遁於是收復和登定長預高文宜州及宣德元興寧仁耀德靜邊等鎮諸城咸州以北哈蘭洪獻三撤之地自高宗時沒于元九十九年今皆復之王進桓祖爲大中大夫司僕卿賜京第一區因留居之

〔參〕○至正二十一年辛丑春以榮祿大夫判將作監事出爲朔方道萬戶兼兵馬使略中桓祖至北道未幾馳報云本國人入彼土者皆順命出來四月庚戌病薨壽四十六葬于咸興府之信平部歸州洞卽定陵下略